



心實愛世
攝信慈度

본회는 동문상호간의 우의증진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한다.
(1976. 10. 15. 등록번호 리-2143호·월간·비매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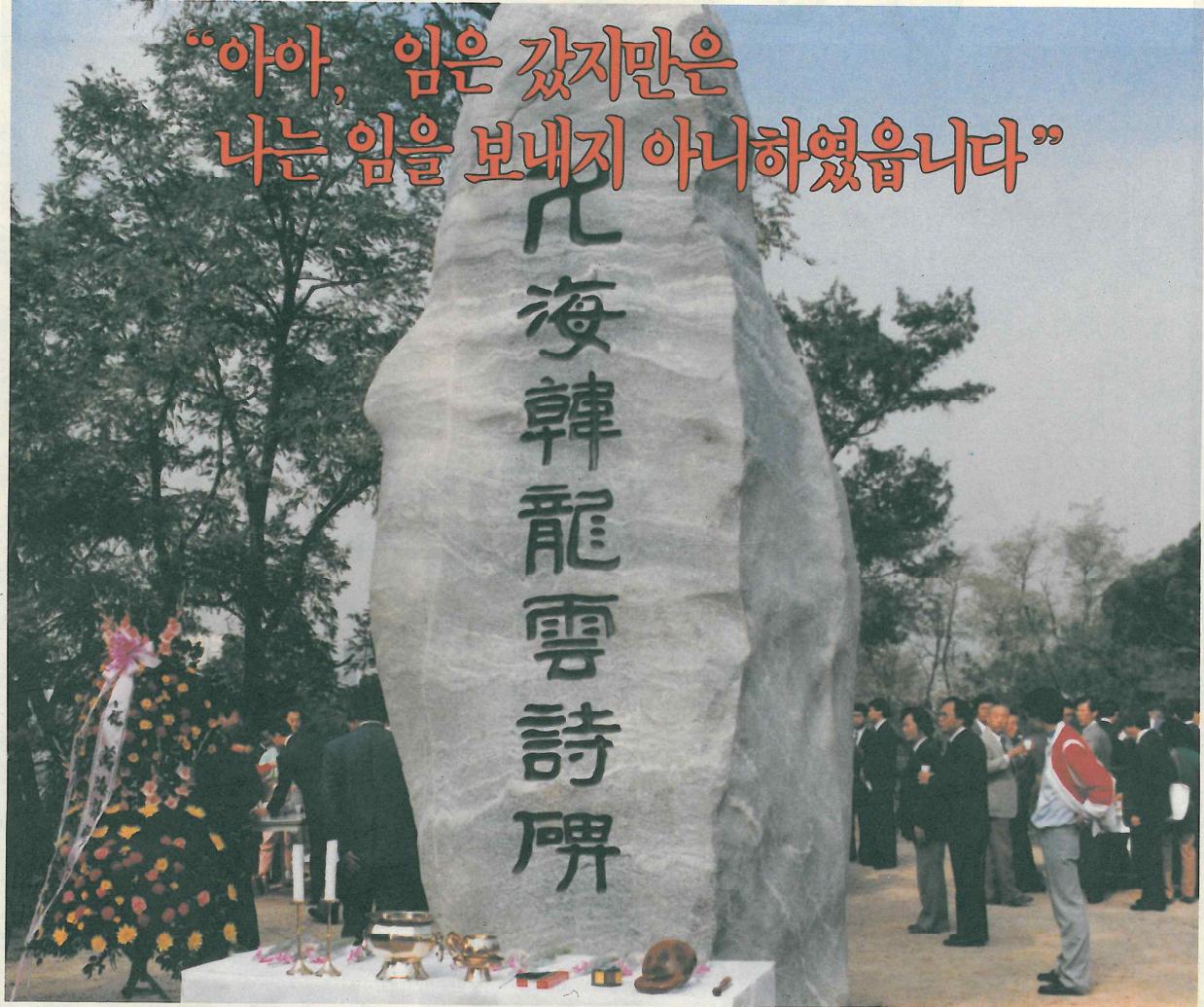
東友會報

1987年（檀紀 4320年）10月 31日 第126號 [1]

발행인 鄭申在
편집인 崔在益
인쇄인 哲旭在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성화빌딩 12층
전화: 733-3993 (代)
733-3991, 3992, 3993

우편대체 : 012328-31-525669
은행지로번호 7500891



卍海韓龍雲詩碑建立

民族의 先覺者이며 東國의 정신적 지주, 卍海 韓雲 선사의 詩碑가 母校 校庭에 建立되어 지난 28일 룸비니동산에서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제막식에는 本会 鄭在哲회장을 비롯, 吳綠園 재단이사장, 李智冠총장, 趙明基(前 모교총장) 본회 고문 및 洪淑子, 宣晋圭부회장등 본회임원 및 교직원, 학생등 1백여명이 참석, 詩碑 제막에 이어 현화를 하고 선사의 높은 뜻을 기렸다. (사진 左)

이 詩碑는 높이 4.7m의 희강암으로, 뒷면에는 卍海의 대표적 작품 「님의 침묵」을 새겼다. 한편 母校에서는 룸비니동산 일대를 「卍海廣場」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9面)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

“선물준비를 위한 귀중한 시간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생 일, 약혼식, 결혼식, 회갑연, 기념식 등 기타
연회석을 위한 선물준비는 어떻게 하시는
지요?

풀위에는 신라명과 케잌이 당신을 만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신라명과 케잌은 우리 입맛에 맞도록 잘 만들어
졌으며 품위있는 색상과 장식등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만족하는 케잌의 예술입니다.

격조높은 모임이라면 언제나 신라명과케이의 차리를 함께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주문에 따라 제작되는 스페셜케이크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며 셀팅꽃, 셀팅당 등을 고도의 기술로 미드어내십니다.

원하시는 때에 가까운 대
리점에 연락주시면 곧 배
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제품 안내

- 실용과 품위의 포장선물
전병선물셋트(땅콩, 해초, 송실),
마늘케이크.

- 순수 식물성 생크림케잌
딸기 생크림케잌, 복숭아 생크림케잌,
키위 생크림케잌, 메론 생크림케잌



대표이사
홍 평 우
(70. 경영학)



新羅명과

경기도 안양시 안양동 200-1
(전화) (0343) 42-8036
수비기산단식 : 863-4040

◆ 신라명과 대리점

- 샘비야..... 233-3131(고 410)
 - 아질리아..... 233-3131(고 411)
 - 신세계..... 756-8557
 - 영동포신세계..... 676-0931
 - 대치..... 556-5725
 - 한강..... 793-3528~3486 797-8553
 - 현대..... 543-9362
 - 반포..... 599-4700
 - 삼호..... 599-9604
 - 잠실..... 424-2257~413-9813

- | | | | | | | | |
|-----------------|----------|------------|-----------|-------------|----------|--------------|-----------------|
| ● 서초..... | 566-1848 | ● 청실..... | 568-5827 | ● 동방..... | 756-5287 | ● 대교..... | 783-1393 |
| ● 한양..... | 543-3224 | ● 압구정..... | 544-7830 | ● 중앙..... | 756-5284 | ● 삼성..... | 543-5539 |
| ● 어의도..... | 783-7059 | ● 종로..... | 544-7831 | ● 동중..... | 756-5285 | ● 고척..... | 502-9937 |
| ● 고종보..... | 500-1000 | ● 여의도..... | 95-2226-7 | ● 서대..... | 462-4946 | ● 한양전시..... | 415-9955 |
| ● 신반포..... | 501-7200 | ● 반포..... | 583-1800 | ● 신도..... | 813-8383 | ● 범여화재점..... | 43-0171-9~9(교3) |
| ● 구로아이[구관]..... | 559-7408 | ● 영등동..... | 542-5527 | ● 기린..... | 415-7304 | ● 편리복구..... | 544-9709 |
| ● 구로아이[신관]..... | 509-2640 | ● 협정..... | 723-2162 | ● 봄나이..... | 423-9884 | ● 이촌..... | 798-9600 |
| ● 학동..... | 784-9200 | ● 신사..... | 543-1108 | ● 불광..... | 388-5332 | | |
| ● 신설동(A)..... | 323-8717 | ● 미도..... | 554-4554 | ● 그랑프리..... | 568-3421 | | |
| ● 신설동(B)..... | 322-4555 | ● 익현회..... | 444-8556 | ● 산이..... | 412-8795 | | |

思考의廣場 — 풍성한 시월



온누리의 모든것이 무 르이고 여루는 풍성한 시 월상상...

설부를 행동을 앞세운 나머지 차분한 생각이 뒤 따르지 못했던 여름 인생 이 지나고 결실과사색들 결들인 가을인생이 익어 간다.

한때의 환희에 너무鹜하나마 자칫자간에 훨슬려 앞을 보는 투시력 을 잃고마는 물풀들을 우

리는 주위에서 흔히 볼수있다.

그리서 우리들은 성공보다는 오히려 실패에서 더많은 지혜를 배우고 더 굳은결의를 갖다듬게 된다는것을 안다. 환희가 영원할수 없고 심의 또한 영원에서는 안되는 연유를 깨닫는 그 속에 삶의 진리를 서린다.

여름내걸금거림 장마아닌 장마로애간장을 태웠던 가난풀 노신들, 그래도 우리는 뜰을 쌓고 김을매며 땀을쏟았다. 땀도 흘리지 않고 빙동에다가 시월이 왔다고 누가 그냥 수학의 기쁨을 주라. 그러기에 시월은 수학의 세월이기 전에 심판의 계절이 아닌가.

자연의 결심인 이시월에 우리는 인생의 결실을 다시 한번 생각지않을수 없지않은가.

천둥 번개가 지축을 흔든후에도 하늘과 땅은 그대로이지 않은가.

인생의 복·여름·가을·겨울의 4계절을 우리는 정녕 열과성을 통하여 창조적인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어느 한계절에만 집착하지는 아니하였는가.

자연의 4계는 다시 오지만 인생의 4계는 한 번뿐이다. 한번밖에 오지 않는 삶에 우리 모두 풍성한 결실을 수확하기 위하여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과 지혜로 자기완성의 삶을 스스로 일구어가는 개척자적정신을 할망하여 하겠다. 결과만에 집착하지말고 성실한 과정에 땀을 쏟은 다음, 시월은 하나같이 그 열매를 안겨주리라.

뛰어나워해도 시월은 쉬는날이 많아좋다. 땀과 진장속에서 뛰쳐나와 잡시나마 풀겁고 일차며 보람있는 여가를 갖자는 휴일을 즐길줄 아는 삶의 재인식이 뿐리 되어간다.

알맞게 쉬는곳에 내일을 위한 능률이 축적된다는 휴식효험론에서 휴식과 능률을 권태와 비능률의 학수관계를 터득케한다. 또한 시월은 한가위를 낀 연휴가 있지 안는가.

술내음 상큼한 송편생각에 낮익은 들판을 지나 미들은 벌써 고향길을 달리고... 따사로운 태양의 은총과 신선한 바람 휘파람을 불고싶은 풍성한 시월이지 아니한가.

(72경제·모교경영관리연구소실장·東經會회장)

인생의 결실을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돼야"



支部消息

단위東友會 재파악에 협조를...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本會에서는 각급 단위 東友會의 임원 및 회원명단을 본會 컴퓨터에 입력시킴으로써 업무의 효율화를꾀하고 본회 및 각급지부·회간의 유대강화를 위해 각급단위 東友會 회장을 파악중입니다.

지난 7월부터 계속되고 있는同一사업은 특히 會報 반송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범지와 앞으로 밭간필 퇴국자 이름의補正등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가급단위 東友會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본회에서는 이를위해 각지부·회로 이미 공문과 컴퓨터입력용 양식을 배포하였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많던 東友會에서는 속히 임원 및 회원명단을

본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껏 본회와 연락이 닿지않은 모임이 있으면 본회로 알려주시어 7단 東國인이 함께 하는 통창회가 될수있도록 東國人 노동의 협조있으시길 재상 당부드립니다.

- 3456 ◇천안지회
- ▲천안시 문화동 62-9977
- ▲회장: 権連玉(74行政) 62-9977
- ▲총무: 吉俊根(62國文) 565-1747
- ◇고양군 동우회
- ▲회장: 李範錫(57政外) 62-2425
- ▲총무: 金允경 새마을 본부 고양군지회
- ◇대구지부
- ▲회장: 朴辰熙(52經濟) 경북 광유(株)
- ▼총무: 金相俊(70政外) 대학 당시아사
- ◇경역학과 동창회
- ▲회장: 白正基(64經濟) 272-9379
- ▲총무: 趙椿煥(74經濟) 273-4048
- ◇吳大哲 朝忠연구소
- ▲회장: 金雨鎮(68經濟) 634-0171(385)
- ▲총무: 韓鉉鎭(78食工) 684-0171(376)
- ◇한국보험공사
- ▲회장: 金勝濬(68商業) 738-4101
- ▲총무: 金武英(71營行) 738-4101
- ◇쌍용제지(株)
- ▲회장: 金昌圭(77貿易) 470-2559
- ▲총무: 鄭虎昌(86會計) 756-4180
- ◇(株)벽신
- ▲회장: 韓世綱(67行政) 273-6961(3)
- ▲총무: 李宇동(84英文) 273-9211(560)
- ◇한국투자신탁
- ▲회장: 鄭龍談(63經濟) 785-1212
- ▲총무: 孫世明(72法學) 846-7056
- ◇진선여고
- ▲회장: 朴泰遠(69國文) 572-7663
- ▲총무: 安載根(73科教) 575-1177

行大院동창회 定總
제8대 임원진 선임

동문이 각각 맡았습니다.

清州支部 정기모임

지난 8월 27일에

- 清州支部(회장: 姜鍾泰·61법학·청주문화방송 실의실장)에서는 지난 8월 27일 시내 창원기든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崔 회장을 비롯 30여명의 회원이 모인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荣達峰의 동문을 축하하며 우의와 회발전을 나눴다.
- 忠南 同門체육대회**
大田支部 주최
- 大田支部(회장: 朴鍾允·59經濟·濟州체육수급株·代表理事)에서는 지난 25일 대전 보문고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대전지부를 비롯 서천·온양 등 庄南지역 1백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각종 경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회발전을 위한 논의를 갖기도했다.

會費… 1년에 1만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同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격려속에 지난 2월 同窓會 전립의 밀바탕이 활사부 국 이전을 비롯, 컴퓨터도입으로 사무자동화를 이루는 등 同窓會가 거듭 발전하고 있음을니다.

同門 여러분께서 내주시는 年會費는 동창회건립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과 동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이게 됩니다.

회費납부에 동문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회비내역

- 一般會費… 1만원
- 理事會費… 5만원
- 常務理事… 20만원
- 단체회비… 회원수대로 해외동문회비… \$ 20
- 監事… 20만원
- 副會長… 50만원
- 會長… 100만원

◇납부안내

- ①은행지로이용 납부
- ②전화주시면 빙문수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本會사무국 (733-3991~3)으로 문의 바랍니다.

東國大學校總同窓會 事務局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러주십시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에게 맡기시고, 손님처럼 즐기십시오.

이제, 가정이나 회사에서의 각종 연회를 전리하고 품위있게 치르실 수 있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 연회출장 서비스는 소중한 모임을 더욱 멋진 자리로 꾸며 드립니다. 작은 모임부터 큰 행사를 이рг까지 각종 모임의 계획과 준비를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언제라도 전화하여 주시면 예산에 맞추어 실속과 기운 준비해 드립겠습니다.

서울프라자호텔을 불러주십시오.

* 출장 서비스가 번거로우신 분은 원래한 시설을 각종 프리미엄의 연회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문의: 전화 771-2249 교환 7245-1249

서울프라자호텔

체신부 通信工事면허업체

北宇電子通信公社

TEL: 273-4048 (代)

- 각종 通信設備 유지 보수
- 각종 通信機器 제작 및 설치
- 전자식 자동교환기 및 키-폰
- FAX·TELEX, 인터폰, MDF 설치
- 컴퓨터 및 SOFTWARE 용역

대표 趙椿煥 (74經濟)

주구 을지로 4가 315-1 무광BD 510호



在京嶺東東友會

東國 1 백주년의 영광을 향한 7만 동국인의 여망과 함께 태백산맥을 가로질러 東國의 기상을 펼치고 있는 在京嶺東東友會(회장=鄭瑞和, 57전체·은행연합회 상무이사)。

강릉지방 출신들을 중심으로 속초·거진에서부터 둘째·삼척에 이르기까지 영동지방 출신으로 서울에서 활약하고 있는 동국인의 모임인 同會는 지난 85년 5월 10일 창립총회를 갖고 鄭瑞호와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하면서 정식 출범했다.

당시 22명이던 회원수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력으로 2년이 지난 지금은 54명으로 늘었다.

특히 현재 嶺東지방의 교육계에서 東國精神을 널리 알리며 후진양성에 일쓰고 있는 鄭義民(53경제·감통교장)·權五一(57법학·각종사업교과)·鄭義昌(60영문·명문고교장)·金德鈞(57사학·속초상고·교장)·동문등의 東國愛에 입입해 해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교에 대거 진학함에 따라 모교의 발전과 함께 同會의 앞날은 무한히 밝다고 하겠다.

同會에서는 또한 『회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조직의 끈이 있어서 한나라는 素회장과 李燦雨(70경영·이원자연)·全玉(69영문·명문고교)·尹正浩(69영문·명문고교)·金德鈞(57사학·속초상고·교장)·동문등의 東國愛에 입입해 해마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교에 대거 진학함에 따라 모교의 발전과 함께 同會의 앞날은 무한히 밝다고 하겠다.

동문들에게도 우승·同學과 同鄉의 情을 잊고 있다.

매 3개월마다 정기모임과 연말 송년도장을 갖고 있는 同會에서는 아직까지는 회원들의 회비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기금 마련에 주력해, 일정액이 모아지면 후배들을 위한 전학사업을 통로로 헬프를 나누거나 모교의 학생들에게 환영회를 열

는데 노력해 잡차 사회 각분야에서 동문들이 뛰어난 역할을 모교와 동창회는 저절로 발전하게 된다며 東國發展을 위해 학교축과 7만동문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기로 했다.

<회원 명단>

◇顧問

▲이규복(85大院) = 명지대교수
▲이법준(79行院) = 국회의원(民正·강릉·명주·양양)

◇會長

▲정장화(57政治) = 전국은행

진원(65經濟·한국자동차보험)·부강(김오성(65法學·중신금속)·상무이사)·이주현(65經濟·농어촌개발공사·공주지사장)·심대석(79經濟·제일은행·지점장)·최종만(84行院·동진구청·주택과장)·신효선(73大院·母校교수)·최돈령(65商學·대구제과관)·상무이사)·최창순(65商學·상경회계법인·한국회계사)·최희순(65商學·한경기업)·이사)·정연시(66法學·한일은행·영종시점장)·조병록(66林學·농림부·대학교수)·권혁일(67經濟·경진사·상무)·유한수(68經濟·한일은행·외환관리부)·박재명(68商學·부산산업부·부사장)·조영모(68경제·롯데상사·수출부·조달과장)·박영백(71행정·산성종합건설·한국화학·과장)·김경기(72國文·청주대교수)·엄준근(78大院·교수)·정운경(74行政·내부부법무담당관·과장)·장민수(77農經·한국원예·과장)·김영구(77經濟·동아제분·자금과내리)·심기준(78經濟·금성사·판매기획과)·정계천(78電氣·한국전자공고교사·황대열(78體育·母校·전자제산원)·박병근(78體育·나폴리·온스포츠 대표)·조영빈(84經濟·동양제과·식수지점대표)·장태수(82經濟·동양정밀·대표)·이경숙(82經濟·동양정밀·자금과내리)

公

告

友情의 자리·結束의 자리

제16회 東國人의 밤 개최

"12월 17일에 만납시다."

7만 東國인이 하나가 되어내일의 東國榮光을 다짐하는 友情과 結束의 자리, 1987년도 東國人의 밤은 韓中전지가 아래와 같이 개최될 예정이오니 同門여러분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이번 제16회 東國人의 밤 행사는 특히 올해로 개교 81주년을 맞은 모교의 1백주년 荣光을 향한 큰걸음을 내딛는 자리인만큼 베팔선배에서 신입회원에 이르기까지 全 東國인이 하나가 되어 東國榮光을 기약합니다.

—아 래—

1. 日時=1987年12月17日(木) 午後 6時30分

2. 場所=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3. 主要行事

① 東國을 빛난 同門 축하·폐수여

② 81년파티 ③ 幸運券 추첨등

* 특히 이번 「東國人의 밤」 행사는 시팅더니 형식으로 진행되며, 티켓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타 자세한 것은 본회 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733-3991-3)

1987年 11月 日

東國大學校 總同窓會

會長 鄭在哲



李範俊



鄭瑞和



李燦雨

알립니다

東國80總同期會 모임

東國大學校 80학번들의 友宜과 團合을 도모하고 母校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東國80總同期會가 아래와 같이 개최됩니다.

비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80학번들의 团結된 모습을 보여주시시다.

—아 래—

◇일시 : 12月 5日(土) 午後 5時

◇장소 : 母校 多汗관식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546-4120·5120(변대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東國 80總同期會 추진위원회

桃園꽃집

화원·꽃바구니
생화·신부화
화분·등·서양란

TEL : 266-4571
야간 : 602-4806

대표 辛承水 (72 경영)
서울·중구 출무로 4가 125-1
진양빌딩 3층 42호

신옹·친절·봉사
대한가족원
영진가족원

- 외국 수입견
- 교화사육상담
- 각종 견구 취급
- 애완견분양

대표 서영진 (61 경제)

중구 출무로 5가 73-2
266-0731 · 267-0195
265-0086

東國人은
東國인이 경영하는
나라항공으로



가장 저렴한 항공요금
(불편도 가능)

나라航空

대표이사 安重五
(65영문)

776-7895-7
752-4396-7

서구 빙팅1103호
(조선호텔후문 맞은편)



<33>

夫婦동문

◇鄭奎永

<58國文·在캐나다>

◇曹芳舟

<58國文>

本 33회 코끼리가족 소개에는 캐나다 동문회의 廣廷大(64國文)동문께서 보내주신 鄭奎永·曹芳舟부부동문에 대한 원고를 실었습니다.

<편집자註>

이제는 벌써 10여년전의 지난간 어느 날이 되어버린 그 해는 徐廷社교수님께서 세계인 주 여행중에 토론토에 잠시머물다 가신 때였다. 유난히도 많은 눈과 활활한 추위를 동반했던 겨울이었다. 당시 교수님은 환경하는 고임을 주선하기

위하여 뜻있는 동문들 몇몇이 석광옥(72佛教) 스님께서 주지로 계시는 조계종 불광사에서 발기모임을 가진 것이 오늘날은 캐나다 동국대학교 동창회 발족의 첫 디딤돌이 되었던 것이다.

在加功문화가 제 모습을 갖추어 동문간의 두터운 情을 나누며 각종 행사를 주선하게 되기까지에는 그 초창기부터 동창회일이라면 밭밟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鄭奎永 부부동문같은 분들의 열성적인 愛東國派가 없었더라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이다. 鄭부부 동문은 이제야 소개하게 됨은 사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곳 外部로서는 여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같은 해에 같은 과(58國文)를 졸업한 고참 동문부부인 정규영동문은 前共和黨 총재를 역임하신 故 정구영씨의 조카가 되시면서 부인 조반우 동문은母校理事 및 부산 해동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을 역임하신 불교계의 元老, 조병구씨의 딸님으로서 졸업 후 3년간母校 교무과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1960년 11월 현역 캠퍼스 커플로서 동문들의 각별한 관심과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산으로 내려가 장인께서 운영하시는 부산 해동고등학교에서 교사는 근무하다 1969년 미국 L A로 이민했으며 2년 후 인 1971년에 이곳 캐나다로 재이민하여 지금은 토론토에서 동북쪽으로 약 한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LINDSAY에서 상당한 규모의 소령센터를 경영 중이다.

이제는 경제적 기반이 굳어진 점도 있지만 부부가 한결같이 후덕하여 토론토를 방문하는 불교계 인사들을 꾹 자기집으로 초대하여 모시기를 잊지 않으며 후배들에게도 늘 마음을 써 특별히 인기가 있는 선배로 통하기도 한다.

슬하에 3형제중 장남 진하(25) 군은 토론토대학을 졸업하고 토론토 요크대학의 대학

원에 M. B. A 과정을 이수 중이며 진중(23) 군은 토론토대학 4년에, 막내 진종(20) 군은 2년에 세학증으로 모두 대학기술사에 있다보니 주말이나 방학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저택에 냉그라니 부부만이 남아 때아닌 신혼기분이라는 즐거운 주제를 하기도.

지난 크리스마스 후기에는 L A에 있는 황갑주 김용복 박승애 동문들을 방문, 밤을 새워 얘기꽃을 피우고 봄을 아울러 봄날을 맞았으며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여학생이 겨우 20여명 미만으로 활동, 가족적인 분위기였고 특히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대단했다」고 曹芳舟동문은 당시를 회상한다.

강금찬, 김진애, 여운영, 박진설 동문들이 특히 보고 싶은 친구들이며 둘째, 윤주은 동문과는 소식이 두절된지 오래라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다.

현재 이곳 동창회의 등록회원은 80여명이며 3월의 정기총회, 6월의 친선야유회, 8월의 친선골프대회 및 12월 「동국인의 밤」 등이 큰 행사로 매달 친목모임을 갖고 길통사에 상부 심조하며 특히 새로 이민오는 동문들의 정착을 돋는 것이 중요한 일부임(?)이기 때문이다.

鄭동문 연락처: PK # 4 LIND SAY ONTARIO RANADA K 9 V 4 R 4

TEL : 705-324-5779, 705-324-1958



韓電 南부산지점장

李長雨 동문

李長雨(62경제) 동문은 최근 韓國電力동부지점 영업부장에서 남부산지점장으로 擢進했다.

李동문은 韓電부산지사 영업부장, 동부지점 영업부장 등을 역임하고 이번에 남부산지점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漢城大 총동창회장에 河登龍 동문

河登龍(85원원) 동문이 최근 漢城大 총동창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지난 9월 22일 同校에서 있은 정기총회에서 사회장으로 선임된 徐河동문은 漢城大동창회 및 본회 발행에도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結婚

▲鄭在雄(71경영·국민은행東友會 총무) 동문이 업무추진역에 서 인사부 조서역으로



▲金鍾哲(67농학·제일제과대학) 동문이 최근 경기도 남양주군 지점장인 김현리 415-6·관능동으로 부임되면서 조반우 동문은母校理事 및 부산 해동고등학교 재단이사장을 역임하신 불교계의 元老, 조병구씨의 딸님으로서 졸업 후 3년간母校 교무과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鄭相淵(77법학·변호사) 동문은 지난 24일 부산시 서구 부민동 2가 10-8번 호에서 鄭相淵 법률사무소 개업(25) 0005~6

법률사무소 개업(25) 0005~6

▲文泰植(49전공·아주산업acha) 본회 수석부회장은 지난 9월 22일 삼봉터미널 예식장에서 3男 德榮군 결혼

▲李鍾國(57영문·치안본부 제 2차장) 동문은 지난 9월 23일 오후 2시 결혼 교통회관에서 차녀 李惠英 결혼

▲崔贊基(56법학·在獨동창회 명예회장) 동문은 지난 9월 17일 오후 1시 비극당 예식장에서 장남 英植군 결혼

▲丁基石(59사회) 동문은 지난 25일 오후 2시 뉴코아예식장 5층에서 장남 大慶군 결혼

▲全齊淵(63상ガ·전주지부총무) 동문은 지난 18일 12시 30분 원불교 전주교구청에서 장녀 由貞암 결혼

▲崔俊錦(67영문·교교수) 동문은 지난 22일 도친상. 동작구 사당동 자택으로

▲白奉欽(61법학·교교수) 동문은 지난 28일 부친상. 전북 전주시 금암동 자택으로

▲金東敏(63경제·교교수) 동문은 지난 8월 29일 별세.

▲李知煥(68상ガ·본회이사) 동문은 지난 11일 모친상.

銀行界 지점장급 동문들 대거 移動



金天壽동문



薛鐸동문



鄭泰鎮동문



金容聖동문



朴鍾九동문



左京熙동문

각銀行 중진들 대폭 榮轉

本會 및 母校發展에 대한 기여도 높아

동지점장, 영주지점장, 인천및부산남지점장을 역임하고 신길동지점장으로 근무해온다. 이번에 성동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鄭豪鎮(60經濟·본회이사) 동문이 최근 주택은행 은지로지점장에서 서초동지점장으로 양전했다.

金鐘군은 지난 69년 외환은행에 입행, 신사 1부차장, 正豐物產(同行 관리업체) 부사장, 광화문지점장을 역임했다.

▲崔俊錦(67영문·교교수) 동문이 최근 주택은행 은지로지점장에서 서초동지점장으로 양전했다.

崔俊錦은 졸업직후同行에 입사, 그동안 신사 1부차장, 正豐物產(同行 관리업체) 부사장, 광화문지점장을 역임했다.

▲崔俊錦(67영문·교교수) 동문이 최근 주택은행 은지로지점장으로 양전했다.

金正友(64경제) 동문이 최근 상업은행 은지로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李永雨(70경영) 동문은 본회이사 및 한일은행 부행지점 차장에서 同 역전점장 갑사역으로 양전했다.

李동문은 본회이사 및 한일은행 동우부 간사로 동창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金鐘군은 67년 삼립은행에 입행한 이후 읍사부·심사부, 영등포지점 차장으로 근무해온다. 이번에 지리를 옮겼다.

▲朴鍾九(65경영·중소기업은행 東友會長) 동문이 최근 중소기업은행 여의도지점 차장에서 同 구로동지점 부지점장으로 榮進했다.

朴鍾九는 최근 同會와 모교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左京熙(69食工·본회이사) 동문이 최근 제주은행 서귀포지점 차장에서 서귀포중앙지점장으로 옮겼다.

左동문은 中央관박식품(株) 기획관리실장, 주제은행 西門 및 南門지점 차장을 지냈으며 제주동문회 간사장으로 옷가게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李段甲(74경제) 동문은 최근 한일은행 부행지점 차장에서 同 역전점장 갑사역으로 양전했다.

李동문은 본회이사 및 한일은행 동우부 간사로 동창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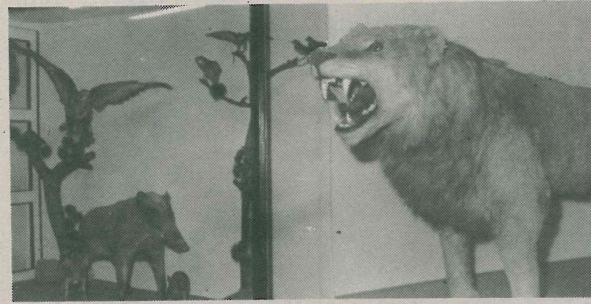
박물관을 세우고 남을 만큼 많은 생물표본을母校에 선뜻 기증하여 회제를 모으고 있는 동문이 있다.

지난달 23일부터母校에 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전시되고 있는 반달곰, 흑猩, 포유류와 각종 거미류, 곤충류, 파충류 등 총 2백 여종 1천 2백여점(식가 3천 8백여만원 상당)의 개인소장품을母校에 기증한 金胄弼(84人院·한국거미연구소장) 동문은 「나 개인이 소장하고 있



는 것보다는 이것을 많은 후輩들에게 관찰하고 연구대상으로 활용했으면 하고 생각해왔다"라고 생물표본을 기증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서울대학교 동물학과를 졸업했으나母校대학원 응용생물학과 자신의 전공인 生態分類에 적합해 지난 84년母校에서 理學博士학위를 취득해 왔다는 그는



동문은母校의 학풍과 전학이 넘어서 미흡에 들지만 재단이 불교종단인 탓으로 태교에 비해 발전이 느린점을 못 내 아쉬워 했다.

동문은 이번에 기증한 생물표본을 오래 보존하도록

"단위 東友會창립 잇달아... 東國榮光 기야"

東國발전의 정신호

○...東國인의 友誼을 계속하는 각급 단위동우회가 계속 신설해 7년 만에 족족의 환영을 받고 있다는데...

내용인즉 東國라이온스, ROTC 동문회, 貿易과 동문회가 최근 잇달아 창립된데 이어 80학번동우회와 중간동우회도 곧 조직될 예정이어서門門들의 단합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다.

단위동우회의 활성화가 본회발전에 직결되고 본회발전이 곧 東國발전일진에 계속 이런 활동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會報받아들고 눈물글쓰

○...풍요한 수확의 계절인 이 가을에 본회에 날아들어온 뜨거운 東國사랑의 소식이 있는데...

다름아니라 멀리 아르헨티나 동문회가 열려 모처럼 결속을 다지던날 마침

김동수(69경제) 동문 약으로 도착된 동우회보를 받아든 이복형(60법학) 주아르헨티나 대사를 비롯한 능분을 보누가母校와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슴 벅차쳤다고.

또 한편으로는 在美동문인



동동국대동문창회동동지임

李完周(63화학) 동문이 본회와 본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서신을 보내오기도.

바야흐로 東同動士, 東漢안에 세계를 느끼며 해외동문뿐아니라 국내의 동문들도 더

"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나는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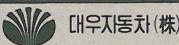
現代自動車(株)

현대인이 선택하는
정상의 승용차!

"그런저" 판매개시

2,000CC
2,400CC
3,000CC

판매과장 : 柳在善
(70경·ROTC 8기)
TEL 274-3103~7
이간 914-6584



대우자동차(株)

'87신형 정통 고급승용차 탄생

로얄시리즈(듀크·프린스·살롱·수퍼살롱)
월드카 브밍시리즈(GSE·GTE·레이서)

TEL 540-4740(직)
(야간) 487-7539 판매과장 : 崔鉉石(74연영)
강남구 논현동 88-7 (고려 B/D 1층)

信一金属센터(株)

활동판·銅파이프·비철금속 일체

대표이사 金鍾葉(84경원)

본사 : 서울 중구 을지로 3가 251-3
☎ 266-6662, 265-3258
지점 : 서울 대문구 응우동 255-58
☎ 924-6662, 924-6663

世進家具有工芸店

TEL : 736-7887, 2311

- 가정용 가구 代表 金文煥 (64 정외)
- 사무용 가구
- 혼례용 가구 서울 종로구 교남동 61-2
(서대문·독립문 중간)

나 필정도로 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금동문은 8만 東國인의 구심력 역할을 할 동창회관련은 무었보다. 지금 한 문제라면 앞으로 본회가 발전하려면 행정력 보강등에 힘써야 한다고 나를 대로의 소견을 피력하기도.

거미연구계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私財를 털어 한국거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금동문은 지난해 하버드대에서 열린 하미세미나에 생물표본 수집의 제일인자로 기네스북에 올리야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생물표본 수집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데 물품채집을 위한 山行이 가끔 수상현자(?)로 오인받기도 하여 한번은 군부대가 산전체를 수색했던 에피소드도 있다고 한다.

母校 농생물학과의 강사로 후배들이 대원 교육을 맡고있기 때문에 금동문은 매강의 때마다 칠판에 「4當5落」이라는 글귀를 쓰고 강의를 시작한다면 서 東國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在學生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므로 후배들이 학문정지에 힘써 줄것을 미지막으로 당부했다. 【範】

불교문화와
조화된 「자연·사박물관」 필요
— 母校에 생물표본 기증한 金胄弼동문

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대영학원에 모교출신이 28명이



「北漢山 벼랑」

金長好 著

「나는 아무래도 산으로 가야겠다!」「너에게 이르기 위하여」 등 산을 통한 삶의 조명작업에서 철학적 사고와 행동을 추구해온 金長好(48文學) 교수의 두번째 山시집이 발간됐다. 길이 끝난데서 등산은 시작되고 일상의 언어가 끝나는 데서 詩가 비롯된다는 작가의 식을 총 49편의 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역대여류詩歌時調集』

文貞姬 譯

文貞姬(70國文·시인)동문은 최근 「역대 여류시가시조집」을 엮어 발간했다.

古朝鮮시대부터 朝鮮朝까지의 여성작가 40여명의 작품 약 90여편을 풀어 그동안 소홀히 취급되어온 여성문학의脈을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나릇배와 행인」

宋堯仁 英譯

국내외 언어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모교 출신인(영문과)

교수의 역사 「나릇배와 행인」이 출간되었다. 한국의 불교사와 불교시조를 영역한 것으로 총 2부로 구성, 1부에 70여편의 불교시를, 2부에 40여편의 불교시조를 연대순으로 수록해놓았다.

『시와 언어』 李炯基 著
『문학장르』 중에서도 특히 詩는 가장 날카로운 언어의식의 표현『시』이라는 李亨기(56불교교수) 두번재 山시집이 출간되었다. 길이 끝난데서 등산은 시작되고 일상의 언어가 끝나는 데서 詩가 비롯된다는 작가의 식을 총 49편의 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한국문화의 거리론』 蔡洙永 著
『한국문화의 거리론』은 『한국문화의 거리론』을 펴냈다.

근대화 이후 서구이론의 편식으로 전통적인 문화정신과의 걸림을 끓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한국문화사의 본질은 걸고 외면할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는데 총 4부로 나누어 詩의 거리론, 색채詩論, 安庸詩論의 「님」의 거리, 이상論 등 열여덟개의 부제로 되어있다.

■ 西独 보쉬純正品
연료절감
엔진출력증가/수면연장
■ 적용차량
현대·대우 全車種

BOSCH SUPER

Cu-Electrode
thermo elastic



수입원 : 洋陽商事 (대표 : 沈載錄·65경영)
TEL : (02) 213-1392/3107 아프터서비스 244-0997

생일이면 떠오르는.....



新羅명과

“실속있고 품위있는 선물을 원하십니까?”

소비자 상담실 863-4040

대표이사 홍평우 (70경영)

시카고로 가십니까? 40 논스톱으로 다녀오십시오.



서울에서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시카고로 가시고자 하는 분들께는 노스웨스트의 시카고 논스톱을 권해 드립니다. 매주 3회(월, 목, 토) 운항되는 시카고 논스톱편에는 도착후 산뜻한 기분으로 업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보다 넓직한 좌석, 최고급 와인 및 정갈한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카고 이외의 도시로 가실 분은 에어링크 서비스를 포함하여 미국내 200여 도시로 모셔드리는 노스웨스트 미국내 연결편을 이용하십시오. 미국으로의 빠르고 편안한 여행은 단연 노스웨스트입니다.

서	시카고
울	씨애틀
동	로스엔젤레스
경	뉴욕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디트로이트

노스웨스트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예약은 가까운 여행사나 노스웨스트로 전화해 주십시오. ●서울 734-7800 ●상항공 735-8500 ●조선호텔 777-9786
●롯데호텔 778-8240/1 ●힐튼호텔 752-2394 ●반도호텔(부산) 44-2240, 462-3443

 **NORTHWEST**

洪性裕 人生劇場

將軍의 아들



“
무장독립군으로
일본군을 대파한
백야 김좌진 장군.
그 빛나는 아버지의
위업에 도전하는
주역황제 金斗漢의
끝없는 투쟁의 기록!
”

朝鮮日報 연재소설
홍성유 인생극장 / 將軍의 아들!
폭발적인 화제 속에 제5, 6권 연속出刊!

홍성유 인생극장 (장군의 아들)은 우리 시대의 신화적 인물 金斗漢을 주인공으로 흥미 진진하게 펼쳐나가는 사회소설이다. 암울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경악감으로 시종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이 소설은 박진감 넘치는 사건전개, 걸작한 입담, 생생한 인물 묘사를 통해 소설의 참재미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金佐鎮 장군의 아들 金斗漢은 임꺽정의 배짱과 돈카호테의 저지학, 대부의 군선으로 빼앗긴 땅에서 주역계의 황제로 등극, 日帝의 무리들을 한손에 쥐고 뒤흔들며 민족hon을 불태웠던 情義 넘치는 仁漢으로, 편박받는 자의 보호자로, 드디어는 政界의 거물로 격동의 한국 근대사에 우뚝섰던 우리 時代 가장 늄름한 대장부이며 대自由人이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作家가 아심적으로 쌌낸 이 작품 속의 특이한 인물들은 기상천외한 행위를 연출하면서 우리를 기막힌 인생무대로 초대한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속도감 있게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은 우리가 걸어온 근대정치·사회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일깨우고 있다.

日帝의 무리들을 한 주먹에 쥐고 뒤흔들었던 경동의 시대 풍운아들의 극적인 삶과 죽음! 물문 속의 기행과 폭력, 뜨거운 애정과 의리! 한국 근대사의 생생한 모습 (將軍의 아들)!

野史 에도 正史에도 기록되지 않은 순수 사락 들이 땅을 강탈한 일본 아쿠자 그 거리를 배회하는 거령뱅이! 접대부들 민족 수난의 암흑기에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여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서 눈부시게 활약했던 金斗漢이 비인간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긴 감동의 고헌!

*전 6권 · 국판 · 각권 300면내외 / 단권 값 3,300원 * 날권판매 * 서점에 있습니다.